당신 덕분입니다

작은 숨결, 큰 희망 당신 덕분입니다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Tel. 02-766-1004
Fax. 02-6969-5196
www.beautifulfund.org

발행인 박종문
발행일 2018년 8월
기획/취재 라현윤
사진 이우기
디자인 글자와 기록사이

차례
CONTENTS

04 아름다운재단 인사말
05 교보생명 인사말
06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소개
10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걸어온 길
12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현황

01. 생명입니다

16 2507번의 기적
18 이른둥이, 잘 지냈나요?
22 이른둥이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

02. 손길입니다

28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
34 1%의 행복을 말하다
36 이른둥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
40 희망산타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03. 희망입니다

46 이른둥이 지원의 사회적 의미
50 이른둥이와 함께한 7인에게 듣다
58 아름다운재단 소개
60 따뜻한 손길 보내준 당신

아름다운 재단 인사말

15년, 나눔의 손길들 기억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2004년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이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른둥이 가정의 역경 극복을 지원하겠다"는 사명으로 이른둥이지원사업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진행해온 15년 간의 사업 이야기를 백서로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으로의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의 치료기구들 틈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이른둥이에게는 한편으로는 힘겨운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 힘겨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수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그동안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약 2,500여명의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에게 초기·재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작은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숙아를 대신 할 한글 이름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뜻이 모여져 '이른둥이'라는 새 이름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솜이 희망산타, 가족캠프, 이른둥이 가족지원 등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모아지면서 공공정책에서도 그간 많은 변모가 있었습니다. 이른둥이를 위한 초기입원치료비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에는 외래진료비가 경감되는 등 이른둥이 병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위한 변화들을 꾸준히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난 15년 간 꾸준히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에 함께 동행해주신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재무설계사님들, 그리고 여러 경로로 참여해주신 1% 기부자와 병원, 복지관,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의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한결같은 나눔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생명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한 15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들을 되짚어 보며, 소중한 나눔과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나눔과 마음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이른둥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종문**

교보생명 인사말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발걸음

'작게' 태어난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작은 바람'. 이 첫 마음으로 시작된 이른둥이 지원사업은 지난 15년간 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숙아 대신 '이른둥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가쁜 숨을 몰아 쉬던 인큐베이터 속 아기는 환한 미소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른둥이 부모는 도움을 주는 기부자로 또 다른 이른둥이 가정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일깨워 준 2,507명의 이른둥이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기적입니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인간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는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중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경제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른둥이 가정에 초기입원치료비부터 재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온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에 더해 이른둥이 가족캠프, 다솜이 희망산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둥이 가정을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공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른둥이를 위한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과 검사료, 외래 진료비가 경감되는 등 이른둥이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 이른둥이가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 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매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신 4,000여 명의 교보생명 컨설턴트와 아름다운재단의 1% 기부자,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 주신 전문위원들, 71개의 협력병원 등 이 모든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이른둥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아낌없는 수고와 애정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신 든든한 파트너 아름다운재단과 용기 내어 역경을 딛고 일어 선 이른둥이 가족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의 삶이 건강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이 오래도록 빛을 바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보생명 전무 **김성한**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에 호기심이 많아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기금을 만들어 2004년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간 2,507명 이른둥이의 치료비 지원은 물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MISSION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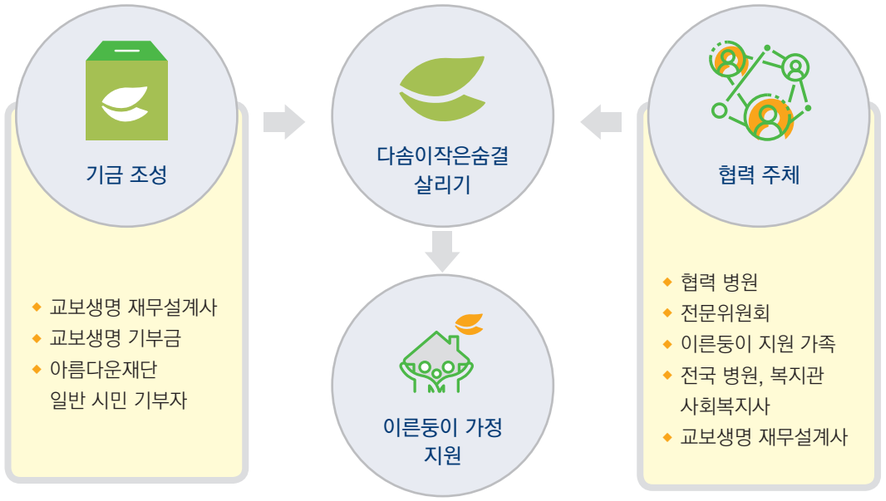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른둥이 가정이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VISION 비전

- 이른둥이의 치료 포기율을 낮추고 재활 치료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 이른둥이 가정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간다.
- 이른둥이에 대한 건강한 사회 인식 및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핵심 사업

운영 구조



협력병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전국 71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가 지원됩니다.(일반 병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 강원 | 강릉동인병원 • 강릉아산병원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경기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명지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분당제생병원 • 분당차병원 • 샘여성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일산힐링스병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경남 |** 진주경상대병원 **| 경북 |** 경상중앙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 포항선린병원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대구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대전 |**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부산 |** 부산성모병원 • 부산영도병원 •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 좋은문화병원 **| 서울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강남차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경희의료원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아산병원 • 서울적십자병원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 인제대학교부속상계백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한일병원 **| 울산 |** 동강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인천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글로리병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전남 |** 순천성가롤로병원 • 여수전남병원 • 한마음의료재단제일병원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전북 |** 원광대학교부속병원 **| 충남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이화병원 **| 충북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 청주성모병원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전문위원

전문위원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 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심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기수 전문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의료 부문

- **김애란 전문위원**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 **김혜원 전문위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조정민 전문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복지 부문

- **김진학 전문위원** 한국다온복지재단 이사장
- **이인재 전문위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이채원 전문위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조경애 전문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문가 Q&A 전문 의료진

입원치료 상담

- **임진아** 울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재활치료 상담

- **홍보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다솜이작은 숨결살리기가 걸어온 길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숨결이 큰 희망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새 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 교보생명–아름다운재단 공동 운영 약정식 8월 17일
- 교보생명 아름다운 일터 캠페인 시작 9월
- 아름다운재단 1% 나눔 시작 일반 시민 대상

2005
- 홍보가족 위촉식 4월 30일
- 홍보가족 여행 8월 26일~28일 제주도
- 수기집 발간 9월 16일
- 사업 1주년 기념행사 및 손지창·오연수 부부 홍보대사 위촉
  9월 21일 세종문화회관, 200여명 참석
- 다솜이 희망산타&몰래산타 발대식 12월 22일 교보생명 대강당, 자원봉사자 78명 참석

2006
- 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매월 15명, 연간 180명 지원
- 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개시 매월 20명, 연간 240명 지원
- 이른둥이 가정 질적 연구조사 3~6월
- 미숙아 한글 이름 공모로 '이른둥이' 새 이름 탄생 7월 14일~8월 6일, 553명 참석
- 지역별 기부자 감사 행사 '나눔이 아름다운 만남' 서울강북지역 7월, 경인지역 11월

2007
- 정부 초기 입원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 나도 이른둥이 사진 콘테스트 4월 16일~26일
-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 이른둥이 가족 및 자원봉사자 540여명 참여
- 사회공헌박람회 부스 홍보 5월 25일~26일

2008
- 전문가 간담회 1월
- 재입원 및 재활치료비 지원 항목 확대 2월
- 어린이날 행사 5월, 이른둥이 31가정
- MBC 라디오 여성시대 공동캠페인 '이른둥이,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8월
- 이른둥이 양육 가이드북 출간 10월
- 이른둥이 가정 문화 참여 이벤트 10월 26일, 100여명 참여
- 성과평가 연구 4~12월
- 신규 협력 병원 체결 59개

2009
-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부분 확대
- 교보생명 FP 기부자 자녀 나눔캠프 1월 9일~21일 화성시 청려수련원, 69명 참석
- 이른둥이 가정 대상 면접조사 9월 14일~10월 1일, 207개 가정
- 5주년 기념 특별기획 심포지엄 '이른둥이 지원환경 및 미래 전망'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 홈페이지 전문가 Q&A 게시판 전문상담위원 위촉

2010

2011

2013

2015

2016

2017

2010
- 다솜이 나눔교육캠프 1월
- 이른둥이 가족캠프 5월 15일~16일, 이른둥이 30가정 참여
- 지역사회 이른둥이 욕구 및 자원 파악을 통한 연계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8월
- 온라인 모금캠페인 '1000번째 작은 숨결' 11월, 91명 8,456,029원 기부
- 트윗나눔과 함께 이른둥이 모금 파티 12월 18일

2011
- 이른둥이 가족캠프 5월, 이른둥이 30가정 참여
- 기부자 공연 나눔 9월 15일 광화문 교보생명, 9월 22일 부산문화회관
- 광명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10월
-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모금함 추가제작
- 다솜이희망산타 12월 6일, 이른둥이 45가정 참여

2012

2012
- 이른둥이 가족캠프 5월 19일~20일, 이른둥이 25가정
-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5일, 이른둥이 45가정 방문
- 기부자 감사 물품 제작 12월

2013

2013
- 이른둥이 가족캠프 5월 4일~5일, 이른둥이 25가정
-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5일, 이른둥이 45가정 방문
- 기부자 감사 물품 제작 12월
- 10주년 연구 조사사업 진행 1~12월

2014

2014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10주년
- 치료비 지원사업 개편 8월
- 10주년 기획보도 진행 11월, JTBC
-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11월
-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4일, 이른둥이 45가정 방문

2015
- 이른둥이 가족지원 시범사업 12월, 2016년 5월까지,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12가정 대상
-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10일, 이른둥이 45가정 방문

2016
- 온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힘내라 이른둥이' 진행 8~11월, 14편 애니메이션 상영, 264,886명 시청
- 제7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참여 10월 15일~16일 서울 여의도공원
-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18일, 이른둥이 38가정 방문, 선물배송 20가정

2017
- 2017 교보 MDRT Day 행사 내 기부부스 운영 3월 8일 교보생명 계성원
- 제 8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참여 10월 28일~10월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
- 다솜이 희망산타 이른둥이 5가정 방문, 선물배송 146가정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현황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다솜이작은 숨결살리기〉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2004-2018 총 모금액 2018.6.30. 기준

10,949,468,138 원

- **5,073,762,461** 원 —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 기부금
- **3,198,400,307** 원 — 교보생명 회사 기부금
- **2,279,956,442** 원 — 아름다운재단 1% 기부자 기부금 (2,630명)
- **306,124,200** 원 — 매칭 기금 기부금 (LG나눔 커피기금, 발리네집 기금, 율이 기금, 박찬길 기금, 성우재은이의 행복나무기금, 오선경 추모기금, 이정화 기금)
- **91,224,728** 원 — 현물 기부금

2004-2018 총 지원액 2018.6.30. 기준

9,800,089,045 원

- **5,673,744,348** 원 — 치료비 지원액
- **4,035,119,969** 원 — 이른둥이 환경조성지원사업 등 지원액
- **91,224,728** 원 — 현물 지원액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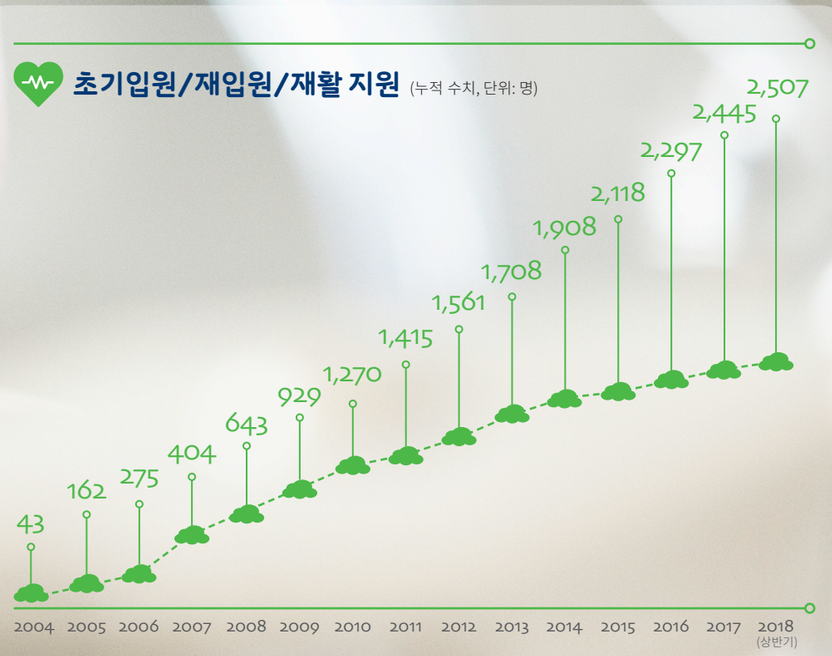
01

생명입니다

: 이른둥이들의 변화

이른둥이는 **생명**입니다.
생사의 길목에서도 강인한 삶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아픔을 딛고 큰 희망으로 자랐습니다.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른둥이를 위해 나눴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준 새 생명들에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와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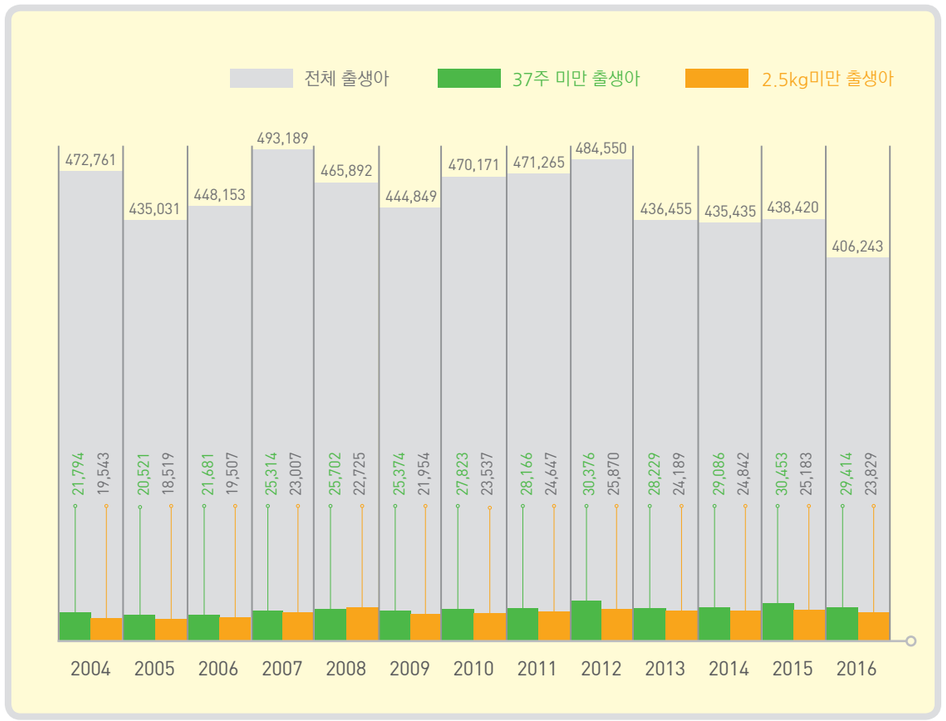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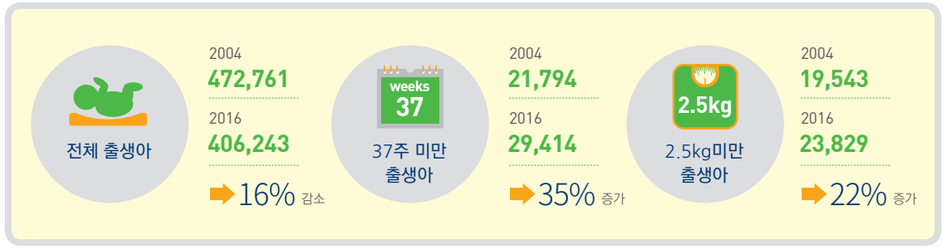
2507번의 기적

국내에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절망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른둥이들이 많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이른둥이와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507명의 이른둥이가 기적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 이른둥이가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15년 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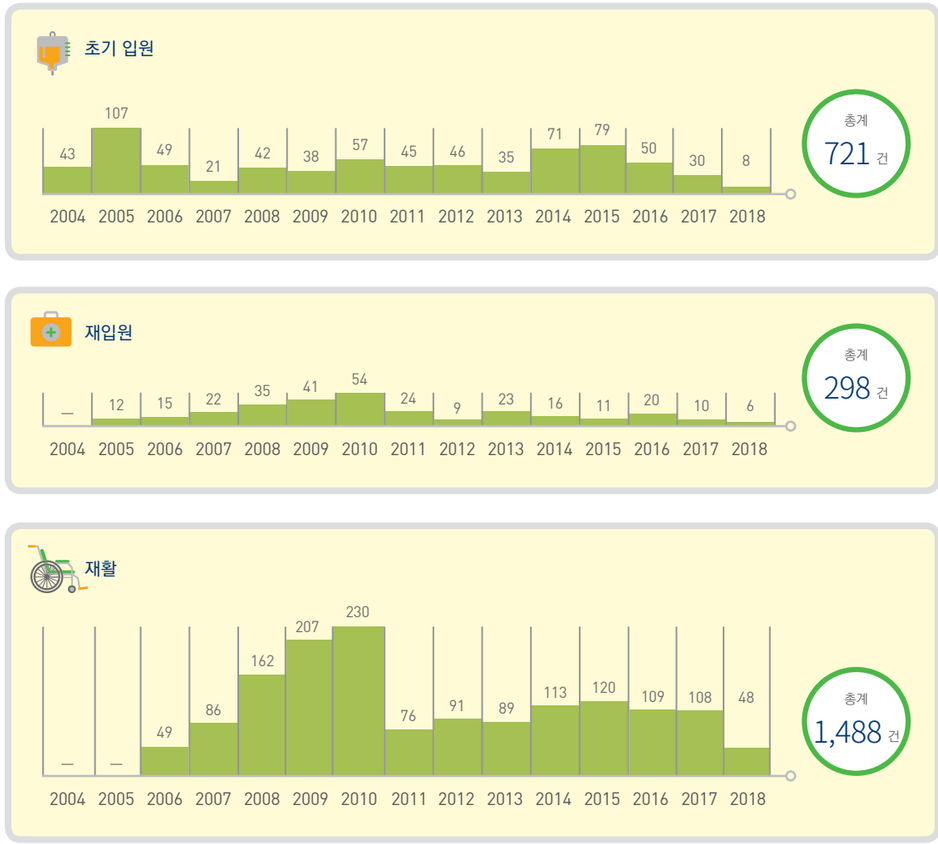
국내 이른둥이 현황 (2004-2016년)

_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2018.03.09. 기준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 (2004-2018. 6월) : 총 2,507 건



이른둥이, 잘 지냈나요?

"이게 나야? 나 어릴 때 이렇게 작았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던 해,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듬해에 초기입원치료비를 지원받았던 이란성 쌍둥이 승서(여)·승욱(남)이는 12년 전 자기 사진을 보며 마냥 신기해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 양윤석 씨도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지 유심히 사진을 들여다본다. 엄마 안향숙 씨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며 손사래부터 친다.

2004년 9월, 29주 만에 각각 1,125g, 1,240g의 저체중으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던 쌍둥이는 14년이 지난 지금, 어엿한 중학생으로 성장했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긴 하지만, 여느 중학생과 다를 바 없이 장난끼 가득한 얼굴들이다.

시험관으로 어렵게 온 생명, 100여 일 간의 인큐베이터 생활

"인공수정에 시험관으로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아버지, 남편 모두 2대 독자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임신 과정이 쉽지 않았기에 낳기만 하면 마음고생은 끝이라 생각했던 안향숙 씨. 더 큰 시련이 닥칠지는 꿈에도 몰랐다. 29주 4일 만에 이른 진통이 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 꼬박 3일을 굶고 진통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 마취를 했는데도 승서와 달리 둘째 승욱이를 낳을 때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뱃속에서 나온 후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한참 들리지 않아 주위를 긴장시켰다.

3일 만에 아기 얼굴을 보러 간 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호스에 가려진 쌍둥이의 체구는 한눈에 봐도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애들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죠."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쌍둥이를 볼 때마다 눈물부터 앞선 엄마와 달리, 아빠는 쌍둥이에게 매일같이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한 이야기, 오는 길에 본 벚꽃 이야기 등을 들려줬다.

"처음에는 아빠가 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뭐하나 싶었어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가 힘을 내야 한다고. 무의식 중이지만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생각에 더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바람 잘 날 없던 시절 힘이 되어준 손길

100여 일 만에 2kg으로 퇴원은 했지만 잔병치레가 많았던 쌍둥이를 키우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승욱이는 퇴원 후에도 잘 울지 않고 늘 기운이 없었다. 작게 태어나서인지 트림 한번 시키는데만 30분이 걸렸고, 숨은 제대로 쉬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다. 무엇보다 쌍둥이다 보니 고생이 배가 되었다. 장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쌍둥이라 늘 함께 입원해야 했다.

식사 한번, 잠 한번, 제대로 잘 수 없던 시기, 안 씨의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남편이었다.

"당시 남편이 3교대로 일하고 아침에 퇴근을 했어요. 본인도 피곤할텐데 녹초가 된 저를 돕느라 점심때까지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은 추스렸지만, 당장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려웠던 신혼시절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른둥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쌍둥이가 입원했던 길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전해 준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두 곳의 지원으로 병원비 마련에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치료비는 부부의 계속되는 걱정거리였다. 그때 교보생명 신재순 FP의 도움으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입원치료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부부는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큰 위로가 되어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승욱이는 커가면서도 병치레가 잦았다. 한쪽 뇌가 부어 안쪽다리가 휘어져 걷는가 하면, 5살 무렵에는 눈동자가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외사시 판정을 받았다. 성장 속도만큼 눈이 급격히 나빠지는 증상이다. 이미 늦었다며 곧장 수술을 권하는 의사의 말에 안 씨는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이 아이의 병을 키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 무렵,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에서 주최하는 이른둥이 가족캠프에 참여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나' 세상에 대한 원망도 컸어요. 근데 가족캠프에 가보니 척추가 없는 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힘든 이른둥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부모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걸 보며 위안이 되면서도 미안하고, 고맙고 여러 감정들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캠프에서 같은 이른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과 나눈 이야기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교보생명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시기 외출이 어려운 이른둥이들을 위해 직접 집을 방문해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준 '희망산타'도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아빠는 얘기한다.

"아이들은 아직도 그때 산타 분들이 오신걸 기억하며 얘길하곤 해요.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이 집안 곳곳에 걸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게 태어났지만 큰 희망 품고 성장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은 승욱이는 동생들에게조차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언어능력이 떨어져 자기표현이 서툴다 보니 답답한 일도 여러 번이었다. 승서는 그런 승욱이의 보호자를 늘 자처했다. 1분 누나라는 이유로 늘 양보는 승서의 몫이었다. 그게 또 승서에게는 스트레스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 승욱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다.

"인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승욱이가 또래보다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승욱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저도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공부는 조금 더뎌도 승욱이는 예체능에 능하다. 달리기도 잘하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
쌍둥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승서는 집 근처 중학교로, 승욱이는 홍천에 있는 대안학교로 진학했다. 기숙사 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지만 승욱이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있다.
가족들의 사랑에 주변의 따뜻한 손길들이 더해지면서 승욱이와 승서, 그리고 가족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희망을 품고 성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른둥이 가족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엄마 안 씨는 이런 위로를 전한다.
"사실 어떤 말도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마디 드린다면, 시간이 약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아이를 믿으세요."
아빠 양윤석 씨 또한 "아이들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주면 잘 클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해맑은 승욱이와 그런 승욱이를 살뜰히 챙기는 승서에게 "오늘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 어땠어?"라고 물으니 "슬펐어요. 잘해야겠어요.", "감동받았어요."라며 기특한 말을 남긴다.

작게 태어난 승욱이와 승서는 그렇게 조금 서툰 걸음이지만 가족들의 사랑, 이른둥이를 향한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던 해,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듬해에 초기입원치료비를 지원받았던 이란성 쌍둥이 승서(여)·승욱(남).

이른둥이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

동변상련!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 서로 안타깝게 여겨 도움을 준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작게 태어나 어려움을 겪는 이른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같은 처지의 이른둥이 부모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슷한 처지의, 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을 보면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위로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진행한 '이른둥이 가족캠프'와 '이른둥이 홍보가족' 활동은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때로는 든든히 기댈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든 시간, 이른둥이 가족들과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준 또 다른 이른둥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이른둥이 가족캠프

토닥토닥 위로받고 희망을 얻어왔어요

이른둥이 가족들의 경우 평범한 가족들처럼 나들이 한번 가기가 어렵다. 이른둥이 가족캠프는 장기간의 입원 및 재활치료로 경제·심리적으로 지친 가족에게 1박2일 간의 캠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쉼과 놀이를 제공해왔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특히 부모들은 모처럼 아이들과 떨어져 이른둥이 양육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다.

가족캠프에서는 이른둥이와 형제들을 위한 놀이체험 시간, 부모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부모모임 시간으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온 가족이 명랑운동회, 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이른둥이 가족캠프는 이른둥이와 형제들을 위한 놀이체험 시간, 부모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들로 구성된다. 둘째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명랑운동회, 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가족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의 평가는 그야말로 '대만족'이다. 2010년 가족캠프에 참여한 한 이른둥이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동안 나 혼자만의 문제이고,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가족캠프로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더 힘이 생기고 재충전의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1박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큰 아이가 내년에는 2박3일이면 좋겠다며 기대하네요."

작게 태어난 이른둥이들이 큰 희망으로 자라길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서로에게 전하는 용기가 아름다웠던 '이른둥이 가족캠프'.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정서적인 케어를 동시에 준 가족캠프, 앞으로도 이른둥이 가족들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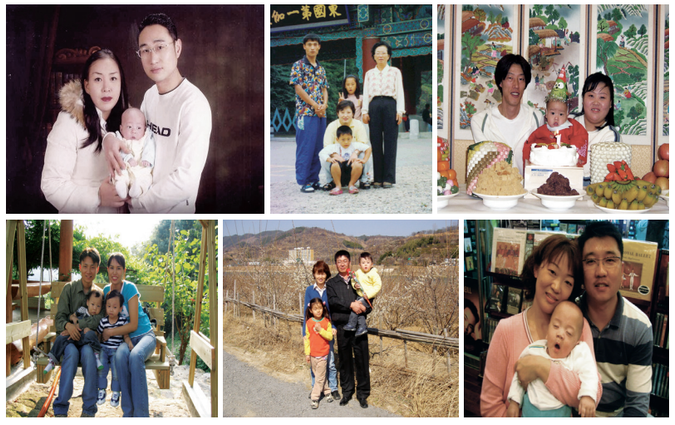
이른둥이 홍보가족

우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래요

건강하게 자란 이른둥이 가족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홍보가족'으로 나서 이른둥이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2005년 제주도 여행을 함께하며 돈독해진 홍보가족들은 정보가 부족한 이른둥이 가족들을 위해 때로는 상담가로, 또 때로는 이른둥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다.

이른둥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정부 지원은 물론

사회 인식조차 낮았던 시기, 이른둥이를 키우며 마음고생을 했던 김창제 · 김미진 부부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을 돕기 위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홍보가족으로 적극 나섰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른둥이 부모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상담을 해주고,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고통을 겪는 이른둥이 부모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지금은 이른둥이 홍보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둥이를 키워온 모든 가족들이 바로 홍보가족이 아닐까.



(위)_이른둥이 홍보가족으로 활동해 온 가족들.
(아래)_홍보가족의 다짐.

홍보가족의 다짐

- 모든 가족들이 바로 홍보가족이 아닐까.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작은 숨결로 태어난 이른둥이의 소중함을 알립니다.
- 작은 숨결로 태어난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 이른둥이 가정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모든 일에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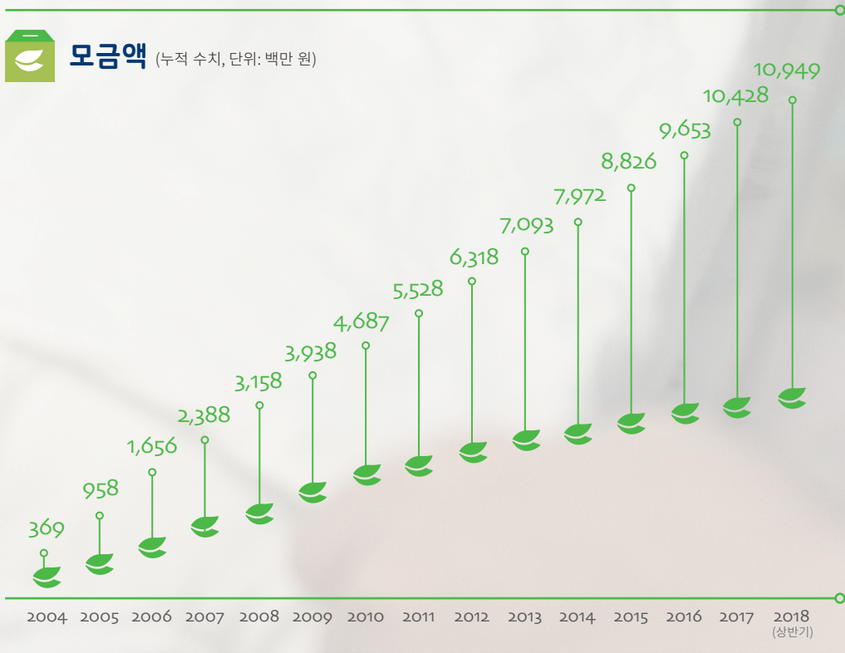
02

손길입니다

: 기부자들의 변화

기부는 **손길**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나눴습니다.
작은 저금통에 동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작은 숨결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준 기부자들에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

교보생명 재무설계사 기부자 간담회

지난 6월 12일 광화문 교보생명 17층 회의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올해로 8년 차인 열정 가득한 FP부터 노하우와 능숙함을 겸비한 34년 차 교보생명의 대표 나눔지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15년을 되돌아보고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모인 4인의 재무설계사는 모두 "한 명 한 명이 기부하는 힘은 미약했지만, 여러 명의 힘이 모이면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온 4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픔의 경험들, 이른둥이와 오랜 인연 맺은 이유

어느덧 15년을 맞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교보생명에서 일한 시간만큼 꽤 긴 시간 동안 이른둥이와 함께한 FP들에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 수만큼 이른둥이와 첫 인연을 맺었던 사연 또한 남달랐습니다.

저도 이른둥이었어요. 1.5kg의 작은 체구에 심정지 상태로 태어나 5개월을 인큐베이터에서 지냈죠.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병원 시설도, 기관의 지원도 없던 시절이라 어마어마한 병원비까지 부모님의 부담이 컸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건 모두 가족들 덕분이에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기적을 만든 거죠. 그런 어렸을 때의 제 모습도 생각나고 어머니의 눈물, 가족들까지 떠올라 '다솜이 희망산타' 소식을 듣고는 바로 신청했죠. 내게도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그 힘겨운 시간이 아이들에게 불행하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저의 형제 중에 막내가 이른둥이었어요. 초등학생이던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기로 당시에는 이른둥이라는 개념도 없던 때라 오직 가족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어요. 어머니도 어렵게 동생을 키웠던 기억이 나요.
가족 중에 이른둥이가 있다 보니 회사에서 이른둥이를 지원한다는 얘기에 더 마음이 간 것 같아요.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 신창재 회장님께서 고객보장 대상 시상식에서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소개하며 기부 참여를 독려하셨어요. 그렇게 사업 첫 해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 이후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에 개인 후원자로 또 우리 아들도 함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입사해서 동료들이 점자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른둥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기부 참여자에게 점자명함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기부자가 되었죠.
첫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같은 의료기술이면 내 아이도 살았을까. 살아 있었다면 군대 갔을 나이인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지켜야할 귀한 생명, 이른둥이, 미혼모 이야기에 저절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제가 기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동료들 덕분인 것 같아요. 뭐든 혼자 하는 건 재미도 없고 힘들잖아요. 기부나 봉사도 마찬가지 일텐데 교보생명 동료들과 함께여서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교사를 꿈꿨던 것도, 재무설계사란 직업을 천직이라 여기게 된 것도, 어울려 사는 것,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돈 벌랴, 공부하랴, 잠을 줄여야 할 만큼 늘 시간에 쫓기던 시기에도 매주 하루 가는 봉사활동 시간은 아깝지 않았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봉사자들을 반기고 기다리는 아이들 덕분에 가슴이 벅찼죠. 사랑을 주러 갔지만 매번 더 큰 사랑을 받아오곤 했어요.
특히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잘 자라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른둥이를 돕는 일 또한 저에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른둥이를 돕는 건 한 아이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돕는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의미가 크다고 느꼈어요.

누구보다 강했던 이른둥이,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

기부라는 이름으로 이른둥이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힘든 순간에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고자 했던 그들을 보며 다시금 인생을 배웠다고 입을 모으는 4명 나눔지기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대전의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 가족의 힘을 많이 느꼈어요. 보통 가정에 이른둥이가 한 명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이른둥이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모두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그날 만난 가족들은 정말 씩씩했어요. 엄마의 얼굴도 굉장히 밝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 이른둥이에게 가장 견고한 성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열 개의 어려움이 있으면 한 개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이 치유된다는 말도 떠올랐어요. 저도 그 가족을 만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 왔어요. 대학시절 제가 봉사활동을 했던 장애인 재활시설에 저희 아이들이 봉사를 나가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다솜이 희망산타'에 대학생이 된 딸과 참여했는데 이른둥이를 함께 만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가족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자기 용돈으로 기부도 하고, 친구들에게 기부 참여를 권유하고…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몇 해 전, 다솜이 희망산타로 한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날 다른 봉사자분이 저를 가리키며 "이 봉사자분도 이른둥이었다"고 하시니 이른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가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우리 아이도 봉사자님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죠?"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저만 보면 우세요.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 순간 저의 존재, 저의 작은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라는 생각에 뿌듯하면서 책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얼마 되지 않는 소액 기부, 몇 시간의 자원봉사가 당사자에게는 환대의 기억으로 자리하는 걸 보면서 정말 타인의 응원은 생각보다 힘이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쌍둥이 이른둥이 가족을 만났어요. 아기의 몸무게가 624g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이른둥이 가족을 응원하고 이른둥이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

교보생명의 대표 나눔지기들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15년을 되돌아보고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도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가끔 안부를 묻곤 해요.

베푸는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았던 시간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느냐고. 사실 기부를 하다 보면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통해 만난 많은 이들이 나눔지기들에게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기부가 바로 이들에게 준 변화입니다.

재무설계사를 시작한 다음 해부터 다솜이 희망산타 활동을 했어요. 그때가 교보생명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던 시기였죠.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고, 인맥도 경험도 많지 않아 보험 영업이 벅찼거든요. '포기할까'하는 마음을 가질 때쯤 운명적으로 다솜이 희망산타를 알게 되었고 이른둥이를 만났어요. 이른둥이 가족을 위해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왔어요. 그 경험 이후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다솜이 희망산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못 나왔겠죠.

예전에 기부는 내가 갖춰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 아파 본 사람이, 또 힘들어 본 사람이 기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솜이 희망산타에 방송인 이광기씨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픔이 있으신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른둥이 가족을 대하시는 걸 보며 '어려운 사람끼리 더 보듬으며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또 작게 베풀었음에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더 많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언젠가 한 고객분이 자신의 은퇴 자금으로 노인센터를 운영하려는데 제게 맡겼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평소 제가 나눔 활동 하는 걸 유심히 보신 거죠. 저를 영업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주변에 더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뿐 아니라 기부는 제 자신에게 늘 행복을 가져다 줘요. 내가 먼저 나누고 베푸는 건 제 일상이 된 거 같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눔은 저를 성장하게 했죠.
또 제가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도 기부를 계속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 꿈은 기부단체를 설립하는 건데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 지금은 여러 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에요. 특히 소중한 생명을 이어주는 기부는 더욱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무설계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봉사와 기부를 통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게 나눔은 스스로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에요. 보험 영업을 시작한 첫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적은 수입에 속수무책으로 드는 병원비로 가장 힘든 시절이었죠. 오죽하면 큰애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할까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아이들과 돈을 모아 3만 원 정기후원 계좌를 유지했어요. 엄마가 어려우니 너희도 용돈을 아껴 5천원씩 보태라고, 일부러 남매에게 책임감을 나눠 줬죠. 지금도 아이들은 나눔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기부를 하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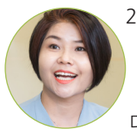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 낸 변화

처음에는 '잘 될까?, 희망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이 하나둘 모이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만들어 낸 변화는 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우리 사회에 던진 작은 파문 느끼시나요.

교보생명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해 왔던 지난 15년은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미숙아'라고 불리며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이른둥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제는 '이른둥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어요.

15년간 2,500여 명의 이른둥이를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에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교보생명이 함께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회사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참여가 어려웠을 거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교보생명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은 단돈 1만 원이고, 작은 힘이지만 전체가 함께하면 강력한 힘이 되니까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기부 문화의 좋은 표본이 된 것 같아요. 교보생명의 기부 문화는 단발성, 시혜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죠. 특히 4천여 명의 재무설계사가 자녀를 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른둥이를 지원했던 거 같아요. 재무설계사는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을 위해 꾸준히 돕는 '나눔과 봉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재단의 1% 시민 기부자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성이 있어 이른둥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2004년 공공지원 정책이 취약하던 상황에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지원, 또 시민들에게 이른둥이에 대해 알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죠.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여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추진되면 좋겠어요.

4가지 색깔, 4가지 나눔 이야기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듯, '나눔'을 바라보는 시각도, 실천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나눔은 없습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떤 색깔인가요.

"나눔은 행복이고 나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또 제 일의 원동력이고요."

"나눔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나누면 복리효과처럼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눌 수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눔도 양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1%의 행복을 말하다

이른둥이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재단 1% 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3명에서 시작된 기부자는 2018년 현재 2,630명(누적 인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5년 간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아름다운재단 1% 기부자'들의 희망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박은정 기부자

큰 아이가 선천성 폐동맥 협착으로 돌이 지나 수술을 받았어요. 당시 병원 생활 중 이른둥이와 부모님들을 만났고, 엄마 된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모두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1%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이른둥이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 아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유진 기부자

이른둥이로 태어난 우리 원영이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름다운재단 1% 나눔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요?

곽경희 기부자

딸의 첫 생일 선물로 의미 있는 걸 생각하다 '나눔'을 선물로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이 태어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른둥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나 주길 바래요.

김완, 김효미 기부자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앞둔 학생이에요. 향후 의사가 될거라 의료 분야로 작은 도움이 되고자 알아보다 이른둥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정말 소중한 생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라져 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희망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후원으로 소중한 희망이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가능성을 열어가길 바래 봅니다.

문영규 기부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에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건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미래에 대한 책무죠.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그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부당해요. 한 가정이 아픈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땐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해요.

신유민 기부자

이른둥이었던 유민이가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다른 이른둥이를 위해 나누고 싶었어요. 작은 액수지만 작은 나눔이 모여 기적을 이룰거라 믿고 유민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했어요. 기부 후 유민이의 기부 증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윤정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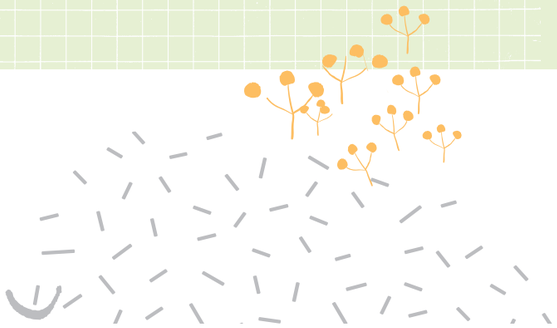
저희 조카도 이른둥이로 태어난 쌍둥이여서인지 '다솜이 희망산타' 때 방문했던 쌍둥이 이른둥이 가정이 더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홍채은 기부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조금씩 기부 저금통에 저금해요. 저금통이 채워지면 또 아름다운재단에 놀러 가고 싶어요.

권오직 기부자

TV에서 일찍 태어난 아기들이 힘들게 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저도 아기를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그 아이들과 가족들의 힘든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작지만 기쁘게 이른둥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어요.



이른둥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만을 지원합니다. 퇴원 후 발생하는 이른둥이의 재입원치료비와 재활치료비는 오롯이 부모의 몫이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때 이른둥이 가정이 역경에서 좌절하며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전국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추천받아 입원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국 71개 병원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와 함께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른둥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협력병원과 소속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나눔을 통해 얻은 변화를 전합니다.

변화_1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소명의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른둥이들에게 병원 소아과는 '어린이집'과도 같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자, 아픈 아이들을 보살피는 의료진이 머무는 안정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른둥이들을 치료하는 협력 병원 중 한 곳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른둥이들을 살피고, 이른둥이 가족 상담을 전담하는 김민지 의료사회복지사는 이른둥이 부모가 울 때는 함께 울고,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이른둥이 가족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도 이른둥이와 부모가 웃으면서 퇴원할 때다.
병원에서 이른둥이와 그 가족을 도우면서 그녀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바로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더 커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이 잘 이겨내고 웃으면서 퇴원할 때 가슴이 벅차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의료진의 치료,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 복지기관과 주민센터 등 후원기관의 연결 등 최선을 다해서 '손발이 짝짝' 맞을 때면 엔도르핀이 샘솟는다는 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또 다른 인생의 배움터다.

변화_2

다양함에 대한 열린 생각을 배웁니다

국내에는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들도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것도 단일민족을 고집하며 외국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라에서 이른둥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안산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송지원 의료사회복지사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작은 생명이 없도록 이른둥이들을 돕는다. 그녀는 이른둥이들의 물리적인 치료 이외의 영역을 도맡아 하면서, 느낀 점이 남다르다.

"아직 단일민족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외국인이라면 일단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계속 내려간다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 아이들 덕분에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함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은 외국인 이른둥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일 테고요."

국적을 떠나 이른둥이 아이라면 누구나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꿈꾸는 송 의료사회복지사는 이 일을 하며 다시금 다양성과 열린 마음을 배운다.

변화_3

의지 강한 부모들을 보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임진아 울산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홈페이지의 '전문가 Q&A' 섹션을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이른둥이 가족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을 돕는다. 이른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시작한 일이다. 신생아 및 이른둥이 전담의로서 의학적 지식과 다양한 임상 경험으로 정확한 소견과 더불어 임 교수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른둥이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바쁜 병원 업무 외에 부가 업무가 될 수 있음에도 '전문가 Q&A' 섹션 일에 열정을 담는 임 교수 또한 이 일을 하며 얻은 게 있다.

"이른둥이 부모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박수 칠 일이 많아요. 의사로서든, 엄마로서든 칭찬해드리고 싶을 만큼 의지가 강한 분들이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생의 교훈을 보호자들에게 배우는 부분도 큽니다."

변화_4

새로운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협력병원인 글로리 병원의 안혜진 사회복지사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와 이른둥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병원생활을 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른둥이와 만나게 될지 몰랐다는 것. 많은 아이들이 이른둥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물론, 이른둥이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병원의 현실을 보며 그녀는 이른둥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차원에서 더 투자해야 하는 민간은 물론 정부조차 이익 놀음에 빠져 재활치료마저 순번을 기다리며 태부족인 병실을 목말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문제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이른둥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배로 커졌다. 그녀는 이른둥이 지원사업이 단기간, 단발성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에 꾸준한 관심과 시간,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른둥이 지원에 함께한 사람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민지 의료사회복지사

위기 상황에서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이 잘 이겨내고 웃으면서 퇴원할 때 가슴이 벅차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송지원 의료사회복지사

아직 단일민족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외국인이라면 일단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계속 내려간다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 아이들 덕분에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함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은 외국인 이른둥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일 테고요.

울산대학교

임진아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른둥이 부모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박수 칠 일이 많아요. 의사로서든, 엄마로서든 칭찬해드리고 싶을 만큼 의지가 강한 분들이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생의 교훈을 보호자들에게 배우는 부분도 큽니다.

글로리 병원

안혜진 사회복지사

사회 차원에서 더 투자해야 하는 민간은 물론 정부조차 이익 놀음에 빠져 재활치료마저 순번을 기다리며 태부족인 병실을 목말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희망산타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른둥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모금에 참여한 교보생명 재무설계사와 임직원,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이른둥이 가정을 깜짝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름하여 '다솜이 희망산타'입니다. 방문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다솜이 희망산타'의 이름으로 연말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사랑을 전합니다.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며 받는 이도, 돕는 이도 행복했던 희망산타들의 나눔 현장을 사진과 짧은 메시지로 전합니다.

이른둥이들이 기뻐할 생각을 하며 또박또박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1년에 한 번, 이른둥이들을 위한 희망산타가 되는 길, 쉽지 않죠?

자! 이제 이른둥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Story_1

이른둥이가 전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저는 이른둥이로 태어난 규현이입니다. 엄마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날이 추워지면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이 맘 때는 망막증 수술로 병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해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것도 세 명씩이나요. 저랑 함께 예쁜 트리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셨어요. 무엇보다 산타 할아버지들이 전해 준 따뜻한 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온 저와 엄마, 아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신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맙습니다.

방송인 이광기 님도
희망산타가 되어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한
코보생명 재무설계사와 임직원

Story_3

루돌프 택시가 전하는 특별한 하루

뛰뛰빵빵~
나는 인터내셔널 택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 제가 1년에 한번,
'루돌프 택시'로 변신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산타할아버지가 루돌프의 썰매를 타고 가듯이,
이른둥이들에게 달려가는 희망산타들에게도 썰매가 필요하니까요.
저를 운전하는 운전사 님은 하루 수입을 포기하고도 이 가슴 따뜻한
나눔을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 루돌프 택시, 앞으로도
이른둥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뛰뛰빵빵 열심히 달릴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희망산타가
출동합니다.

희망산타들은 직접 이른둥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내라! 이른둥이

Story_2

희망 산타가 전하는 행복한 나눔

나는 다솜이 희망산타입니다. 언젠가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을 무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중에 기적적으로
다솜이 희망산타를 만났습니다.
이른둥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산타인 우리가 더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직접 포장하고, 손편지를 쓰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희망산타로
활동하며 생명의 소중함, 희망을 다시금 배워갑니다.

하루 수익 대신 기꺼이 썰매
역할을 자청해준 루돌프 택시
자원봉사기업 '인터내셔널 택시'의
희망산타들

03

희망입니다

: 사회의 변화

사회는 **희망**입니다.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세상을 희망으로 물들였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날을 꿈꾸며
사회에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른둥이 지원의 사회적 의미

이른둥이 지원사업 〈다솜이작은숨결리기〉가 걸어온 지난 15년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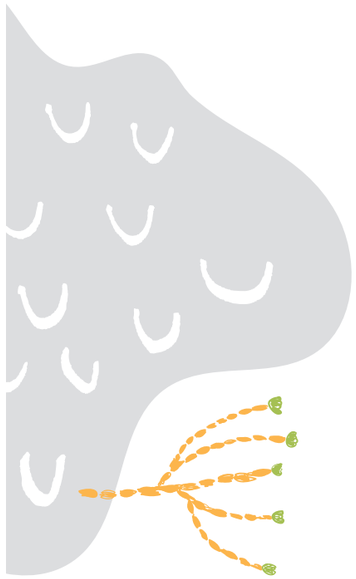
남들보다 일찍, 더 작게 태어나 약한 아이들, 우리는 한때 미숙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언가 결핍을 나타내고 낙인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이기에 사용이 적절치 않았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른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른둥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의 사회적 성과이기도 하다. 이른둥이는 임신 후 출산까지의 기간(37주 미만)주가 출생 시 체중(2.5kg 미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일컫는다. 이른둥이의 출현률은 약 8%에 이르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 이른둥이로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의료나 재활 등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아지고 또 가족도 어려움을 겪곤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이다. 그런데도 태어나는 신생아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더 낮은 나라에 비해서도 이른둥이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이 훨씬 더 취약하였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원사업으로 역할해왔다.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이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 진행 기간 동안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다.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모금이 이루어졌다. 50억의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 기부금, 31억 원의 교보생명 회사 기부금, 22억 원의 아름다운재단 1% 기부자 기부금,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이 연계한 여러 매칭 기금 기부금과 현물 지원 등 다양한 모금 자원이 활용되었다. 같은 기간의 지원액 역시 치료비 지원 56억 원, 이른둥이 환경조성지원사업 26억 원에 이른다. 초기 입원 721건을 포함하여 총 2,507건의 입원 치료비와 재활치료비 지원이 진행되었다. 해마다 수백 명의 아동들에게 치료와 재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성과와 의미는 비단 이러한 양적 수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간 진행되어왔던 사업이 이제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가진 의미를 몇 가지로 추려 되짚어본다.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첫째, 민간 사회 참여 활동의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이다.

민간이 사회적 관심사와 의제를 개발하여 선도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진행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비교한 민간의 역할은 전문적 선도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곤 한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21세기 초, 이른둥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 정책이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간이 먼저 지원사업을 시작해 나갔다. 단지 모금과 치료비 지원에 더하여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형성해 나갔다. 공공은 이에 뒤따른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취약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던 정부의 이른둥이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선도적인 활동이 공공 정책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 민관 협력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이른둥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기부를 촉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부가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 금액에 비교하여 참여 인원의 수가 적은 편이라는 단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같은 크기의 사회적 자원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여 형성된 경우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사업에서는 교보생명의 재무설계사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다달이 기부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의 1% 기부자도 수천 명에 이른다. 2018년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교보생명 재무설계사 4,000명, 1% 기부자 800여 명이 매월 기부에 참여해왔다. 지금이야 다른 몇몇 민간 지원사업에서도 비슷한 지원 방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2004년부터 재무설계사들의 자발적 기부에 회사의 지원을 매칭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기부에 더하여 비영리조직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기부를 병합하는 것 등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선도적 기부 문화의 창달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셋째, 모범적인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의 공동 파트너였던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 사회공헌팀(교보다솜이지원센터)은 사실 이 사업 이전부터 주목받던 조직들이었다. 아름다운재단은 과거 다른 재단이나 비영리조직들과는 다른 색채를 가져왔다. 특정 종교나 대기업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혁신적인 기조 속에서 적극적인 기부와 지원의 의제를 발굴해왔다. 또

규모보다는 의미에 기반한 사업을 조직화해왔다. 교보생명도 더 규모가 큰 기업보다도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아이템의 발굴과 개방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적 기업 사회공헌을 보여준다는 평판을 듣곤 했다. 이 두 파트너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에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연계, 공동 사무국의 형성 등을 통해 기업 조직과 NGO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두 파트너는 사업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혁신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고, 양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다. 15년 가깝게 공동 사무국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해온 이 사업에서의 협력 과정은 기업과 비영리조직 파트너십의 모범이라 할만하다.

넷째,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이른둥이 지원을 사회적 의제로 형성하였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치료비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른둥이 출산 직후의 초기입원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향후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 재입원 치료비 지원, 이른둥이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사업 내용이 계속 확장되어 왔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 노동자 가족의 경우 이른둥이 출산 시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업 대상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입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이른둥이 가족을 심리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른둥이와 가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업 진행자의 편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모색하였다. 이른둥이 가족의 참여와 지원 행사 개최, 이른둥이에 대한 포럼의 개최, 언론 활동, 이른둥이 용어의 제안과 활용 등이 이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이른둥이에 대한 감수성이 15년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다섯째,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운영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과 비영리조직 이외에도 보건의료, 재활, 사회복지 등 관련 영역의 학계나 현장 전문가를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필자도 이 과정에서 십여 년 간 이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다른 민간 사회공헌 관련 위원회와 비교하여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회는 매우 밀도 있는 논의와 역할이 요구되는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파트너 기관의 공동 사무국은 확고한 사업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지식을 십분 활용해왔다. 이른둥이 지원이라는 하나의 사업, 하나의

의제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상황이다. 그리고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이 종합적 상황과 필요에 기초하여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이 성실하게 발휘되도록 잘 조직화하였다.

이제는 이 사업이 일단 그 한 매듭을 짓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더 좋은 내용의 기획이 곧장 떠오르기 힘들 정도로 좋은 사업이었기에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민간의 활동은 선도성을 가지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15년이 훌쩍 넘은 이 사업의 기간은 짧지만은 않았다. 아쉽지만, 지난 15년 간의 사업을 정리하며 사회적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획과 모색이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간의 사업에서 얻어진 경험들은 100억 원이라는 금전적 가치를 훨씬 넘는다. 우리 사회에도, 교보생명에게도, 아름다운재단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잘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역사가 되어갈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우리나라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경험과 기회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

> 아이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었죠. 아마 누구나 좀 그럴거에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는 정말 도움이 되었죠. _2013년 지원을 받은 부모와의 면담에서

이른둥이와 함께한 7인에게 듣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심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결같이 이른둥이들과 지난 15년을 함께해온 주역들을 만났습니다. 5인의 전문위원들, 그리고 교보생명 교보다솜이 지원센터, 아름다운재단의 7인에게 '이른둥이와 함께한 시간'을 들어봤습니다.

김기수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파랑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파랑새'입니다. 이른둥이 가족들은 물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소망, 행운, 행복을 가져다주니까요.

한 가정에 이른둥이가 태어나서 치료를 하다보면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지난 15년 간 이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보람된 건 '미숙아'라는 부정적 이름을 '이른둥이'라는 긍정적 이름으로 바꾸고, 이른둥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생아 치료 영역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끈 중요한 사업으로 남았기에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와 함께 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른둥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역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른둥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도움을 받은 이른둥이와 가족, 그리고 기부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며,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른둥이 날'이 별도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이른둥이와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될 날을 꿈꿔봅니다.

김진학

한국다온복지재단 이사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마중물이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마중물'입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참여하면서 이 사업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이른둥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루었으며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마중물이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이 비영리단체와 기업이라는 서로 다른 조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잘 협력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한 진정한 일등공신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보생명 재무설계사 분들의 아름다운 연대도 이 사업의 성공에 큰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만난 재무설계사 한 분이 이른둥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다른 보험이 있음에도 감사한 마음에 일부러 하나 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눈사람이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눈사람'입니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사 한 명 한 명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른둥이들을 돕다보니 어느새 생명도 살리고 기쁨도 주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준 이들이 있었기에 어느새 눈덩이는 눈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생명을 살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위원회라는 게 어느 조직, 사업에나 존재하지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의 전문위원 참여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 사업이 의료비를 모으고 그 의료비를 단순히 이른둥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저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른둥이의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더 많은 아이와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 전문위원들이 기여할 수 있었기에 보람도 느끼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간에서 시작했지만 제도, 정책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너무 잘해 와서 전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전문위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채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범생이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모범생’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영역 간 관계가 모범적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이 하지 못한 부분을 민간에서 먼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슈화 시켜 정부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왔다는 것은 사회적 욕구와 시류를 잘 읽은 결과라 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데 중요한 몫을 해냈습니다.

파트너십 또한 모범적이었습니다. 10여년 넘게 전문위원들이 바뀌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업은 드뭅니다. 전문위원들이 자기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기는 경험을 안겨준 몇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교보생명에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지원처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정성스럽고 내실 있게 사업 취지를 살려 운영해온 아름다운재단에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을 학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례가 반드시 연구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어떤 사업이든 정부 정책으로 바뀌면 저변이 확대되고 더 많은 이른둥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순수하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에 감사해하고 사회적으로 재환원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김혜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전문위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교두보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교두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둥이를 돕는 일로 신생아 영역에서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발판으로서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15년 간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돌이켜보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를 통해 정부에서도 이른둥이 지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제도나 정책 개선도 함께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생아 영역에 한 획을 그은 사업이라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재활치료 부분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이나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등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을 기관이 없다는 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치료 받을 기관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 알리며 견인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차경식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엄마의 마음이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4천여 명의 재무설계사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눴습니다.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자녀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를 돌본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재무설계사분들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에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보생명은 1958년 대한교육보험으로 시작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교육보험을 세계 최초로 창안했고,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 이념으로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 등 아동을 돕는 일을 오랜 기간 지원해 왔고, 2004년 당시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또 그 일을 찾아서 교보생명이 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했기에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지속해 오며 이른둥이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파트너(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등)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 실무자들의 노력이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민간의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로 손꼽히며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이른둥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냈기에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더욱 넘쳐나길 바라며 교보생명은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4-2018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스토리북

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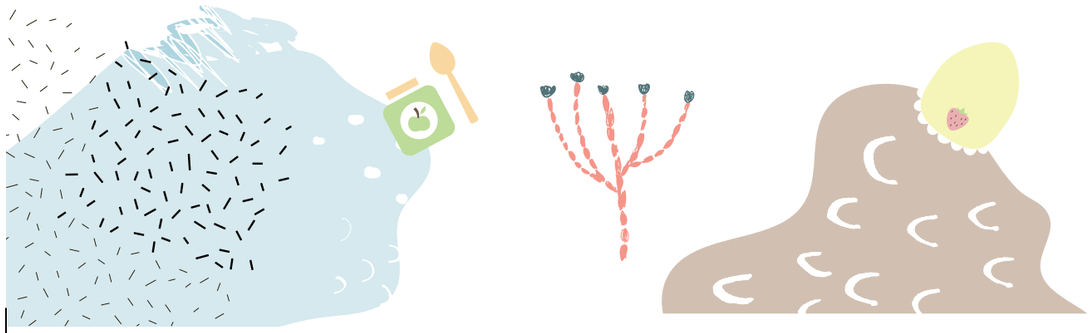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그림자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그림자’입니다. 늘 사람의 뒤에 따라다니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생명을 불어넣는 화룡점정(畫龍點睛) 같은 역할을 전문위원들과 교보생명, 기부자들의 힘으로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 우리 사회에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시작되기 전, 이른둥이들은 ‘조숙아’, ‘미숙아’라고 불렸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사회적 편견이 자라면서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른둥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에 이른둥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함께 심어졌습니다. 이 단어가 아직 표준어로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후 국내에서 이뤄 낸 값진 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가 저개발국가의 해외 아동들을 돕는 과정에서도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헌사업을 고민하지만 좋은 아이템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부자, 지역활동가, 아름다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들의 염원을 담아
'작은변화'에 투자합니다.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안전, 주거, 환경의 8개 분야에서
단계별로 '작은변화'를 심고, 싹을 틔우고, 뿌리내리며,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리 대단하지도, 원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작은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장에 뿌리내린 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두를 위한 시민의 재단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아름다운재단은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불평등 해소로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 안전, 주거, 환경
8개 영역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고
함께 요구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만듭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지원으로 더욱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초지원부터 정책개선 까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영역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교육영역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서장석 리더쉽프로그램 지원사업
-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노동영역

-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문화영역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하인즈워드재단기금사업

사회영역

-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 기부문화 기획연구
- 기부문화 도서지원
- 기부문화연구 석박사논문 지원사업
- 기부문화총서
- 기빙코리아
- 나눔교육
- 변화의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 연수부문 지원사업
- 변화의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아시아민주주의와인권기금사업
-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안전영역

-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 사각지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 하라기금 지정기탁사업
-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

주거영역

-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환경영역

-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전화 02-766-1004
팩스 02-6969-5196
홈페이지 beautifulfund.org
블로그 beautifulfund.org/bfstory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babydasom.org

따뜻한 손길 보내준 당신

지난 15년 간 작게 태어났지만 큰 희망으로 자라날 이른둥이를 위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분들입니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사 정기 기부자

강북FP
본부

곽순신 곽춘옥 곽혜숙 강명희 구선희 권경희 권금화 권복상 권순덕 권은희 권인영 금미애 기창자 길정숙 김가희 김경미 김경희 김광복 김광일 김귀선 김귀자 김규숙 김금의 김금자 김기남 김기정 김기철 김길순 김나영 김난경 김남규 김남희 김남희 김다솜 김다정 김다혜 김대희 김덕남 김덕자 김도시자 김동희 김명남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문악 김미경 김미나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미주 김미지 김미현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범숙 김보경 김복희 김봉현 김봉희 김상순 김상순 김상엽 김상현 김상호 김새미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숙 김성희 김세연 김소연 김솔미 김송림 김수경 김수남 김수정 김수진 김순금 김순덕 김순옥 김순자 김순화 김순희 김순희 김승일 김시우 김신애 김신화 김애정 김애정 김애정 김애정 김양희 김연숙 김연화 김영미 김영미 김영순 김영임 김영자 김영희 김예슬 김옥경 김옥순 김옥희 김용수 김용숙 김우철 김유정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아름다운재단 1% 정기 기부자

가정선 금주라 김병원 김유미 김창호 노현덕 박성준 박현규 손원권 안진경 유승무 이명길 이원경 이혜영 전소연 정희경 천기문 하장협
강갑주 기연정 김병필 김윤경 김창환 노현웅 박성현 박현정 손재심 안진희 유승비 이명희 이원상 이혜진 전소영 제세관 천소영 하정수
강경순 기태양 김병훈 김윤미 김채윤 노희령 박성희 박현정 손정달 안창호 유옥경 이문식 이원우 이호 전수진 제은애 최경화 한경희
강경아 김가현 김보근 김윤서 김채은 도은하 박세령 박현정 손정희 안충용 유은아 이미선 이유미 이호진 전예준 제환준 최경희 한명희
강경은 김강산 김보영 김윤정 김태경 도장현 박세희 박혜경 손춘애 양경미 유재순 이미정 이유선 이홍구 전유리 제후석 최광기 한미옥
강나을 김건후 김상미 김은미 김태관 도정철 박세희 박희철 손하준 양려진 유재형 이민석 이윤정 이훈욱 전인재 조경희 최나눔 한민아
강나혜 김경수 김상아 김은서 김태기 도현영 박소연 반주리 송근재 양선미 유정민 이민우 이은경 이휘강 전장수 조기철 최덕희 한상규
강동연 김경숙 김상욱 김은수 김태민 도현진 박소윤 배경원 송나라오 양성철 유지영 이민우 이은열 이희숙 전지혜 조남숙 최명제 한상미
강두경 김경신 김상희 김은숙 김택근 동성재 박소이 배근욱 송미경 양옥주 유하리 이민정 이은정 이희정 전진배 조묘구 최문식 한상범
강라온 김경애 김서현 김은영 김택진 두경진 박송이 배동민 송민경 양윤란 유해선 이민호 이은정 인석근 전진서 조미경 최미영 한승철
강미영 김경연 김석호 김은영 김하정 류경호 박수경 배서연 송선동 양윤서 유현석 이병열 이은정 임미선 전진원 조미숙 최미향 한승화
강민수 김경오 김선균 김은영 김학진 류다경 박수문 배소영 송승용 양윤석 유희철 이병우 이은지 임병준 전하진 조미자 최병수 한영훈
강민영 김경인 김선미 김은주 김한기 류영일 박수연 배우진 송안섭 양윤정 육번지 이부길 이은호 임서연 전현경 조민영 최상례 한운희
강민정 김광수 김선부 김은화 김한솔 류재홍 박수연 배인섭 송안진 양윤정 윤경아 이상미 이은희 임선영 전혜진 조성영 최서경 한원선
강병렬 김교진 김선영 김인규 김해연 류정욱 박수연 배주연 송영환 양정아 윤기성 이상민 이익규 임성현 전홍련 조성우 최서준 한유미
강병태 김국현 김선학 김인수 김현 류제충 박수옥 배주용 송원용 양주언 윤나영 이상복 이일재 임순경 전효진 조수영 최선미 한은실
강상형 김규섭 김선화 김인숙 김현수 류지섭 박수현 배주원 송윤경 양지윤 윤대이 이상엽 이자영 임승철 전희정 조승연 최선미 한재호
강승완 김근구 김성 김인숙 김현숙 류효선 박순연 배준우 송자영 양진경 윤명희 이상온 이재근 임시아 정경일 조용욱 최선욱 한정원
강유미 김기섭 김성호 김인옥 김현아 마영진 박승현 배지현 송재경 양진영 윤미현 이상욱 이재섭 임양진 정경자 조용환 최선주 한주희
강유석 김기웅 김성희 김인형 김현정 명순옥 박승혜 배진수 송혜진 양진영 윤민지 이상조 이재성 임영민 정경태 조우제 최성우 한지연
강윤재 김기태 김세곤 김자은 김현주 문경식 박시연 배철호 신경인 양철훈 윤선영 이상태 이재영 임용호 정고운 조웅민 최성혁 한혜민
강은정 김기태 김소영 김재민 김현주 문규리 박안나 배철휘 신경훈 양희수 윤성용 이상현 이재원 임용휘 정금랑 조원희 최수림 한혜진
강은희 김나예 김송수 김재용 김현주 문근숙 박영미 배춘애 신도담 엄선숙 윤세희 이상훈 이정민 임재은 정대명 조유니 최애정 함성운
강정희 김다연 김수빈 김재은 김현지 문방글 박영미 배춘환 신동훈 여환정 윤신동 이상훈 이정민 임정민 정동철 조윤숙 최영규 해피빈
강지은 김다은 김수영 김재준 김현진 문상영 박영숙 배한진 신두용 연은경 윤원동 이서영 이정숙 임정석 정명주 조은조 최영롱 허순철
강천 김달수 김수옥 김재혁 김형섭 문석진 박영숙 배현주 신미경 염명섭 윤윤구 이서윤 이정원 임정화 정문영 조은진 최영미 허윤
강현주 김달연 김수일 김재희 김형종 문성필 박원서 백가인 신미자 예범수 윤은영 이서정 이정은 임종신 정미선 조은진 최영숙 허인희
강효미 김대호 김수지 김정미 김혜란 문수정 박윤식 백관용 신상운 예은실 윤재성 이석 이정재 임진선 정민규 조이김 최영식 허중회
경주빵 김덕희 김수한 김정복 김혜영 문정주 박윤정 백미란 신서경 오건준 윤정현 이선미 이정주 임한결 정민송 조인오 최영호 허태림
고선옥 김도연 김수현 김정수 김혜원 문주영 박윤희 백민욱 신수경 오문식 윤제호 이선영 이정진 임헌자 정민하 조인태 최유진 현봉실
고유준 김도준 김수현 김정숙 김혜진 문지영 박은실 백승실 신승엽 오석준 윤주희 이선영 이정훈 임혜선 정방원 조정은 최윤미 현정원
고윤 김도택 김수현 김정아 김혜진 문지환 박은원 백승흔 신영득 오석준 윤지성 이선옥 이정훈 임희철 정석윤 조정현 최윤정 홍경화
고은준 김도현 김숙희 김정진 김혜현 문형진 박은정 백정임 신영범 오성민 윤채영 이설주 이정희 장경석 정선이 조현봉 최은경 홍민선
고일용 김도훈 김순덕 김정현 김호광 박관순 박은주 백지열 신용민 오성민 윤태경 이성구 이종국 장경원 정성규 조현수 최은서 홍민재
고태민 김동균 김순욱 김정현 김홍기 박기모 박은진 범희태 신원엽 오성택 윤필석 이성우 이주언 장경일 정성민 조현오 최은정 홍보영
고화숙 김동수 김승민 김제희 김효진 박기문 박은혜 변윤서 신유민 오수만 윤학형 이세민 이주홍 장기철 정소영 조현주 최익규 홍상식
공용석 김동철 김승우 김종수 김효현 박기영 박이준 변정훈 신윤아 오수진 윤현식 이세옥 이준구 장나은 정소희 조현희 최인주 홍석형
공정환 김동혁 김신유 김종식 김희상 박기한 박일랑 변주혁 신인혜 오순희 윤혜원 이세원 이준석 장만환 정숙영 조형석 최인호 홍영옥
곽경희 김두현 김연경 김종우 김희섭 박노은 박재욱 변진삼 신주희 오승지 윤화선 이세인 이준수 장미진 정승윤 조홍래 최정원 홍영자
구본능 김두희 김연경 김주연 김희정 박만선 박재윤 봉혜민 신준원 오유진 윤희국 이수경 이지명 장민기륜 정아현 주귀숙 최종은 홍유미
구본화 김만석 김연수 김주원 김희정 박말순 박정규 부승환 신중식 오은주 은희주 이수연 이지솔 장서윤 정양수 주나리 최종훈 홍의도
구서우 김명순 김연옥 김주인 나경화 박명수 박정무 서가람 신지섭 오은진 이가온 이수정 이지언 장순희 정연윤 주미영 최주아 홍정우
구시하 김명주 김연정 김주혁 나영신 박명애 박정환 서광원 신지원 오준승 이가현 이수진 이지연 장완숙 정엽 주소영 최지아 홍지연
구재학 김명한 김연준 김주호 나인식 박명희 박종덕 서상원 신창재 오준택 이강수 이수진 이지연 장윤우 정영인 주순옥 최지원 홍지은
구제만 김명희 김연희 김주희 나정미 박미선 박종일 서석태 신현미 오지연 이강찬 이수현 이지연 장윤정 정영화 주승두 최지향 황금희
구초하 김문주 김열린이 김준석 나종철 박미영 박준영 서순옥 신현준 오지은 이건영 이수홍 이지원 장윤희 정예진 주신영 최진석 황미정
구훈영 김문주 김영관 김준현 나혜림 박미영 박준효 서영미 신효정 오진상 이건우 이숙현 이지은 장은석 정용필 주영수 최진영 황복실
국경오 김미경 김영미 김중호 나효성 박미진 박지아 서정민 신희수 오향숙 이건우 이승기 이지은 장은석 정유진 주유정 최진희 황석산
권경미 김미선 김영섬 김지민 남궁란 박미혜 박지연 서필선 심용석 오효은 이경랑 이승목 이지한 장정은 정윤경 주정석 최창섭 황선권
권기영 김미선 김영신 김지범 남기성 박미희 박지영 서행락 심재현 우선경 이경미 이승열 이지호 장지영 정윤영 주진택 최철민 황성철
권나윤 김미선 김영은 김지안 남서율 박민규 박지원 서혜정 심정희 우성호 이경복 이승헌 이지환 장지웅 정윤정 지경현 최행집 황수진
권선희 김미자 김영은 김지연 남연미 박민영 박지은 선광수 심진옥 우수정 이경아 이시우 이진영 장진복 정은실 지현숙 최현우 황승업
권순기 김미정 김영화 김지연 남유정 박병근 박진경 선지은 안나겸 원남희 이경애 이연서 이진영 장진아 정인영 지혜경 최현정 황유리
권승욱 김미정 김영희 김지연 남인순 박병훈 박진영 설재경 안미혜 원민정 이경임 이연우 이진욱 장찬원 정재훈 진성백 최혜선 황유진
권억 김미화 김옥주 김지은 남철희 박보인 박진영 성동진 안민용 원부순 이규희 이영미 이진호 장혁중 정정미 진일정 최홍희 황은주
권연재 김민서 김완 김지현 남현 박봉우 박진운 성시준 안상훈 원종곤 이금라 이영섭 이진희 장현정 정주현 차건수 최화정 황인국
권오영 김민수 김완기 김지혜 노동숙 박봉정 박찬국 성연희 안서현 원진형 이기연 이영자 이창훈 장현희 정지선 차민경 최희연 황종수
권오직 김민숙 김용길 김지홍 노무성 박부미 박찬성 성영창 안선영 원태희 이기영 이영주 이청우 전경식 정지이 차영훈 태성진 황지경
권정미 김민정 김우권 김진선 노상대 박상천 박찬호 성하권 안옥자 유경진 이다현 이예나 이충만 전귀선 정찬영 차은지 태신희 황지원
권주희 김민정 김우석 김진아 노용승 박서연 박창섭 성현 안용주 유구현 이다희 이예담 이한영 전대천 정혜인 차익근 태은정 황진영
권현호 김민지 김운호 김진영 노우연 박서준 박철주 성현아 안유라 유리나 이덕열 이옥순 이향원 전미선 정혜진 차정민 표수미 황철현
권효수 김민찬 김원석 김진이 노윤우 박선녕 박태민 성혜경 안유리 유미래 이동섭 이용기 이현우 전서영 정호근 채순자 하성해 황현식
금다한 김범규 김원선 김창길 노지연 박선숙 박태정 소순구 안종천 유선안 이동은 이용준 이현주 전서진 정홍미 채정훈 하수민 황효석
금보경 김범석 김원태 김창범 노치환 박선영 박하영 손선하 안준오 유수경 이동환 이용호 이현주 전선우 정효선 채지윤 하윤정 황희성
금성희 김범우 김원태 김창석 노판권 박성권 박해리 손세영 안지은 유순갑 이란희 이우림 이혜숙 전성희 정휘양 채효진 하인숙